

누푼은 물결

통권 286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7 2023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써주세요!

지난 6월 19일 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이 나눔장터에서 생긴 수익금을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써달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습니다. 이에 환경연합도 후원증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진 환경교육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대호방조제에서 해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3차 전국행동 참가

- ▶ 발행일 2023. 6. 10.
- ▶ 발행인 손창원, 송영주
- ▶ 편집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유형민, 박희선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이달의 시
| 관찮다 관찮다 다 관찮다 / 천상병
-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 온실가스 직접배출 전국1위, 간접배출 8위
- 6 지역환경초점2
|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2위로 상승
- 8 지역환경초점3
| 당진 환경교육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 10 지역환경초점4
| “성급한 민자 산업단지 강행 중단하라”
- 11 지역환경초점5
| 당진 호수공원 대덕동 일원 선정
- 12 지역환경초점6
| 소들섬 송전선로 허위사실 유포 고소
- 13 지역환경단신1
| 대호방조제에서 해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 14 지역환경단신2
|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3차 전국행동 참가
- 15 지역환경단신3
| 충남 석탄화력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의 절반 넘어
- 16 지역환경단신4
|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써주세요!”
- 17 전국환경초점1
| “바다에 왜 버려? 일본 땅에 보관하면 되잖아!”
- 18 전국환경초점2
| 낙동강 하류 녹조 심각 “20분 조사하는데 악취가...”

- 19 6월 살림살이
- 20 6월 활동소식
- 22 7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괜찮다 괜찮다 다 괜찮다

천 상 병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을
 내 영혼의 빈 터에
 새날이 와, 새가 울고 꽃잎 필 때는.
 내가 죽는 날
 그 다음 날
 산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과의 노래가
 한창인 때에
 나는 도량과 나뭇가지에 앉은
 한 마리 새
 정감에 그득찬 계절
 슬픔과 기쁨의 주일
 알고 모르고 잊고 하는 사이에
 새여 너는
 낡은 목청을 뽑아라.
 살아서
 좋은 일도 있었다고
 나쁜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우는 한 마리 새

작가소개

천상병 시인

1952년 “문예”에 ‘강물’, ‘갈매기’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가난, 무직, 방탕, 주벽 등으로 많은 일화를 남긴 그는 우주의 근원, 죽음과 피안, 인생의 비통한 현실 등을 간결하게 압축한 시를 썼다.

시집으로 “새”(1971), “주막에서”(1979),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1987), “요놈 요놈 요 이쁜 놈”(1991) 등이 있다.

당진, 온실가스 직접배출 전국1위, 간접배출 8위

에너지산업, 당진 배출량 69.5% 차지해 에너지전환 중요

당최근 공개된 시군구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진시가 온실가스 직접 배출에서 전국 1위, 간접 배출에서 전국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산업에서 직접배출량의 69.5%가 배출돼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6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의 기초지자체 기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진시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에서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당진시의 2020년 직접 배출 온실가스 총배출량(도로수송 VKT기준)은 5,253만톤으로 전체 직접배출량의 7.8%를 차지해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1위로 나타났다. 전력 및 열 사용, 폐기물에 의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은 564만톤으로 2.17%를 차지해 전국 8위로 나타났다.

당진시 직접배출량은 에너지와 산업공정 및 제품 생산에 집중됐다. 에너지 배출량이 4,269만톤, 81.3%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공정 및 제품 생산 배출량이 927만톤, 17.6%를 기록해 두 분야가 직접 배출의 99%를 차지했다. 에너지 배출량을 세부적으로 보면 에너지산업이 3,649만톤, 제조업 및 건

설업이 556만톤, 수송이 42만톤을 배출했다.

당진시 간접배출량은 전력사용에 집중됐다. 전력사용에 의한 배출량은 552만톤으로 간접배출량의 97.9%를 차지했으며 폐기물에 의한 배출량이 12만톤, 2.1%을 기록했다.

한편 광역지자체별 온실가스 직접배출 총배출량은 충남이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20년 충남의 직접배출 총배출량은 1억4,444만톤으로 전체 총배출량의 21.53%를 차지해 2위 전남의 8,550만톤보다 5,894만톤을 더 배출했다.

시군구별 직접배출량 순위에서 당진 1위, 보령 4위, 태안 6위, 서산 9위로 충남의 4개 시군이 전국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당진이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석탄화력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산업 때문”이라며 “당진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 VKT기준 : Vehicle Kilometers Travelled, 지역별 차량 등록대수, 주행거리를 활용하여 가공한 지역별 연료 소비량 기준 배출량

[글 : 사무국]

(단위 : 천톤CO2eq.)

시군구 2020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순위	광역시	기초	총배출량	기여도(%)
1	충남	당진시	52,532.42	7.8
2	전남	여수시	37,290.12	5.53
3	전남	광양시	35,560.24	5.28
4	충남	보령시	32,114.16	4.77
5	인천	옹진군	28,475.16	4.23
6	충남	태안군	27,991.19	4.15
7	울산	남구	27,861.83	4.13
8	경북	포항시	22,248.48	3.3
9	충남	서산시	20,552.26	3.05
10	인천	서구	18,683.60	2.77

시군구 2020년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순위	광역시	기초	총배출량	기여도(%)
1	경기	화성시	9,060.44	3.49
2	울산	남구	7,059.84	2.72
3	전남	여수시	6,388.60	2.46
4	충북	청주시	6,370.75	2.45
5	울산	울주군	6,215.34	2.39
6	충남	아산시	6,028.78	2.32
7	경기	평택시	5,988.78	2.3
8	충남	당진시	5,641.27	2.17
9	경기	용인시	5,204.27	2
10	경남	창원시	4,636.61	1.78

광역시도 2020년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순위	광역시	총배출량	기여도(%)
1	충남	144,436.58	21.53
2	전남	85,499.93	12.75
3	경기	85,319.55	12.72
4	인천	58,541.14	8.73
5	강원	53,132.90	7.92
6	울산	47,133.66	7.03
7	경남	46,296.37	6.9
8	경북	39,849.49	5.94
9	서울	24,882.46	3.71
10	충북	23,448.85	3.5
11	전북	19,650.02	2.93
12	부산	14,351.75	2.14
13	대구	9,428.22	1.41
14	대전	5,642.23	0.84
15	제주	5,319.55	0.79
16	광주	5,157.10	0.77
17	세종	2,735.37	0.41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2위로 상승

현대제철 전국 3위로 급상승, 당진화력 전국 10위
광역시도별 배출량 충남 8년 연속 전국 1위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사업장의 2022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한 결과 당진시는 시군구별 순위가 전년도 3위에서 2위로 상승했으며 사업장별 배출량에서는 현대제철이 전년도 12위에서 3위로 급상승하고 당진화력발전소가 전국 10위를 차지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6월 30일 한국환경공단이 공개한 전국 887개 TMS 설치 사업장의 2022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진시는 2만634톤을 배출해 광양시 2만3,907톤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순위 3위에서 1계단 상승한 결과였다.

당진시는 2만634톤을 배출해 전년도 배출량 1만3,760톤 보다 6,874톤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시군구별 배출량 순위가 전년도 전국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반면 전년도 2위로 당진시보다 앞섰던 단양군은 1만5,659톤을 배출해 전국 4위로 하락했다. 당진시의 TMS 설치 대상 사업장은 23개 사업장이었다.

사업장별 배출량을 보면 현대제철은 1만412톤을 배출해 전년도 배출량 5,378톤보다 5,035톤, 93.6%가 증가한 결과 순위가 전년도 12위에서 3위로 크게 상승했다. 당진화력발전소는 6156톤을 배

출해 전년도 6523톤 보다 367톤, 5.6%가 줄어 순위가 9위에서 10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현대제철 안에 있는 부생가스발전소인 현대그린파워는 2,188톤을 배출해 전년도 373톤 보다 1,815톤, 486.2% 증가해 순위가 70위에서 22위로 크게 상승했으며 지에스이피에스는 1,253톤을 배출해 전년도 1,202톤 보다 51톤, 4.2% 증가했으나 순위는 그대로 31위를 유지했다.

광역시도별 배출량을 보면 충남은 2022년 배출량 4만1,048톤으로 전년도 3만4,200톤 보다 6,848톤, 20.0%가 증가해 전국 배출량의 19.1%를 차지하며 8년 연속 1위라는 오명을 기록했다. 충남에 이어 전남이 3만6,471톤으로 2위, 강원이 3만5,259톤으로 3위를 기록했다.

업종별 배출량을 보면 발전업 7만1,247톤, 제철·제강업 5만4,242톤, 시멘트제조업 5만1,379톤, 석유화학제품업 2만3,396톤, 기타 1만4,941톤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배출량에 비해 제철·제강업이 55.3%, 석유화학제품업이 24.5%, 기타 업종이 14.2%, 시멘트업이 2.5% 증가했으며 발전업만 4.8% 감소했다.

2022년 TMS 설치 사업장 전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1만5,205톤으로 전년도 배출량 19

2022년 TMS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순위

순위	사업장	소재지	배출량(톤)
1	(주)포스코 광양	광양시	20,824
2	(주)포스코 포항	포항시	14,278
3	현대제철(주)	당진시	10,412
4	쌍용씨앤이(주) 동해공장	동해시	9,317
5	태안화력	태안군	8,437
6	(주)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삼척시	7,815
7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단양군	7,433
8	하동화력	하동군	7,136
9	한일시멘트(주)단양공장	단양군	6,454
10	당진화력	당진시	6,156

만1825톤에 비해 2만3,380톤, 12.2%가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 주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동 요인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현대제철의 배출량이 두배 가까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TMS를 설치한 굴뚝수가 24개에서 72개로 늘어났기 때문이고 당진화력의 경우 1호기와 4호기의 환경설비개선 사업으로 인한 가동정지 등으로 발전소 전체 이용율이 소폭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글 : 사무국]

2022년 TMS 대기오염물질 시군구별 배출 순위

순위	시군구	배출량(톤)
1	광양시	23,907
2	당진시	20,634
3	포항시	17,211
4	단양군	15,659
5	동해시	12,052
6	여주시	11,022
7	삼척시	9,274
8	울산 남구	9,259
9	태안군	8,444
10	영월군	7,396

당진 환경교육 한마당 성황리에 개최

당진환경운동연합·당진시·당진교육청 주관으로 열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환경 보호 필요성 알려



당진시민들이 직접 들고온 물품으로 플라마켓을 운영하는 모습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고, 체험하는 당진 환경교육 한마당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6월 5일은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정해진 기념일이며,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다.

이에 당진시와 당진교육지원청은 당진지역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한 2023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 당진 환경교육 한마당을 마련했다.

10일 당진시청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40여개의 환경교육 체험 부스와 학생들이 참여한 플라마켓 등이 운영됐다.

체험 부스는 당진시학부모회장협의회의 주축으로 22개의 학부모회 부스가 운영됐으며, △폐유리로 만드는 냄비받침 △폐현수막을 활용한 북소리 가방 만들기 △커피박 키팅 △양말목 공예 등 일상생활 속 버려지는 물건을 활용한 리사이클 체험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친환경 핸드위시를 비롯한 고체세제 만



행사에 참가한 학생이
유기농 매실청 담그기 체험을 하는 모습



재활용품을 이용해
화분을 만들어
공기정화식물을 심은 모습

들기 등 일상 속 환경 보호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방법도 전했다.

당진 꿈나라학교 이해영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환경 보호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환경에 대한 상식을 알아가기 위해 환경 상식 골든벨을 비롯한 △플리마켓 △환경연극 △에너지 캠퍼스 투어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이 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또한, △150g 이상의 우유 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화장지 교환행사 △다회용 텀블러 지참 시

음료 무료 제공 △재활용 화분(지름 15cm 이상) 지참 시 공기 정화식물을 제공하는 등 쓰레기 없는 당진 환경교육 한마당을 통해 환경보전 실천 참여를 확산했다.

당진시 기후환경과 강남기 팀장은 “환경교육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받아야 하는 교육의 하나인데, 이번에는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배우고 익혀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행사를 준비해왔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당진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방식을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당진신문]

“성급한 민자 산업단지 강행 중단하라”

100만 평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산단 추진
 “산폐장 업체인 SK에코플랜트가 산단 시행사”
 “산업단지보다 산폐장이 목적 아닌가 의구심 들어”
 “당진·서산·아산·예산과 연대해 공동대응 나설 것”



지난 6월 5일 당진시청 기자회견실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성급한 민자 산업단지 강행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00만 평 규모의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성급한 민자 산업단지 강행을 중단하라”며 논평을 발표했다.

당진시는 지난달 22일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SK에코플랜트(주), (주)삼원산업개발, (주)부자, (주)MDM플러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2032년까지 합덕·순성 일대 100만 평 규모의 민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시의 성급한 민자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적정 산업단지 규모 및 신규 조성 여부에 대한 지역사회 공론

화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며 “폐기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SK에코플랜트가 충남 4개 지역에 그린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 사천시에서는 산업단지 전체를 폐기물처리단지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폐기물처리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

식되면서 최근 산업단지와 산폐장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산업단지보다는 산폐장이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몇 년 전 산폐장 문제로 큰 사회적 갈등을 겪은 당진시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체를 시행사로 하는 민자 산단 조성을 계속 강행할 경우,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그린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산단과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아산·예산·서산 지역과 연대해 충남 4개 지역 산업단지·산폐장 문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당진시대]

당진 호수공원 대덕동 일원 선정

당진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가 2안인 대덕동 일원으로 확정



대덕동 호수공원 후보지 전경. ©당진시청 제공

28일 당진시는 호수공원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 이날 오전부터 호수공원 후보지 1안(우두동), 2안(대덕동), 3안(시곡동) 등 후보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중략)

현장답사를 마친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이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중략) 검토 결과, 2안 부지 일원에는 순성면 갈산리와 성북리로 연결되는 재이용수 관로가 매설돼 있어, 이를 이용해 호수공원에 수원을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후보지보다 도보권으로 공원 접근성이 용이하며, 인근에 당진천과 산 그리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호수공원을 조성하는데 수월하다고 판단했다. (중략)

농림진흥지역 해제가 관건

최종 대상지는 선정됐지만, 당진시의 본격적인 행정업무는 지금부터다. 우선, 29일 당진시는 공원 대상지 경계에서 인근 100m 이내로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유보했다. 이는 최종 부지 선정 이후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및 전용행위가 발생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당진시 산림녹지과는 도시과, 토지관리과와 협조해 개발행위제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고시할 계획이다. (중략)

남은 과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최종 부지로 선정된 대덕동 일대에는 농업진흥지역이 60%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인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공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농림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공원 조성은 늦어질 수 있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농림지역해제가 가장 큰 관건은 맞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림부를 찾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호수공원 예산은 1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공원 조성비를 국·도비 확보, 민간기업의 사회적 환원 사업 등 다 각도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소들섬 송전선로 허위사실 유포 고소

기자회견 연명 13개 단체와 대표자 대상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소들섬 송전선로 투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13개 단체와 대표자들을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당진YMCA, 당진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는 지난 3월 3일 '당진시민단체 특별대책위'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후 3월 6일자 모 지역신문에 기자회견문을 광고로 게재하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소들섬 송전철탑 건설을 지지하는 행위를 보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한전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표현하였다.

이들 단체의 송전선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2005년 이후 오랫동안 송전선로 투쟁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 온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환경시민단체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단체의 허위사실 유포가 악의적인 행위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여겨 기자회견에 연명한 13개 단체와 각 단체의 대표자들에 대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 311조 모욕죄 위반으로 6월 30일 당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05년부터 당진군, '송전

선로 건설반대 당진군대책위'와 함께 현대제철 선로를 활용한 우회 대안노선을 제시하여 한전을 설득하고 신평면 5.8km 구간을 지중화하는 등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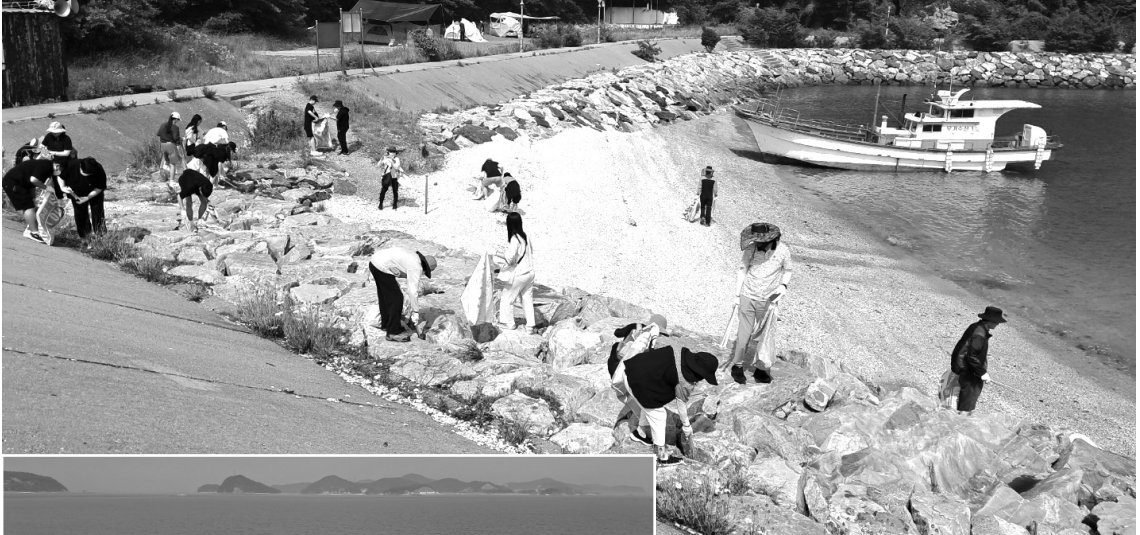
또한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고시된 기존 노선 대신 신평면 신당리 남원천 끝까지 지중화 구간을 연장하고 남원천 제방 끝에서 솟벌섬과 소들섬 사이를 통과해 아산시 인주면까지 일직선으로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대안노선을 제시하였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의 대안이 수용되었을 경우 소들섬은 물론 우강면에는 송전철탑이 단 1기도 건설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위 13개 단체들은 2005년 이후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당진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무시하고 기자회견 개최와 신문광고를 통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소들섬 송전철탑 건설을 지지하는 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마치 한전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듯이 표현하여 환경시민단체로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이 24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였기에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글: 사무국]

대호방조제에서 해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6월 24일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 2회차



지난 6월24일 대호방조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변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탐동초등학교 환경동아리 '에코탑' 학생들이 이 해변정화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은 6월 24일(토) 대호방조제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해변 환경정화활동은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으며 탐동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 등을 비롯해 34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해 대호방조제에서 부표, 그물, 밧줄 등 폐어구와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펼쳤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손창원 공동의장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방지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다시 우리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탐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우리 바다를 살리는 보람된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5월과 6월에 이어 9월과 10월에 '다함께 우리 바다 쓰담쓰담'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글: 사무국]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3차 전국행동 참가

당진환경운동연합 5월 이후 매주 캠페인 진행



지난 6월 24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청 부근에서 일본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3차 전국행동에 함께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송영주)이 5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8회에 걸쳐 매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진행했으며 서울에서 열린 3차 전국행동에도 참가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 10명은 6월 24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옆에서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라는 주제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3차 전국행동에 참가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에 동참했다.

이어 26일(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구터미널 로터리에서 8차 캠페인을 진행해 일본 후쿠

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알리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범국민서명운동을 펼쳤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5월 8일 이후 매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캠페인을 펼치며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411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여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5월과 6월에 이어 7월에도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매주 캠페인과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사무국]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는 LNG 확대 재검토하라"



기후위기 충남행동 회원들이 6월 2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 중부발전(보령)을 비롯한 전국의 발전사들이 LNG(액화천연가스) 활용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NG 소비를 확대하고 고착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포스코인터네셔널은 전남 광양 LNG터미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충남 당진과 보령에서도 LNG터미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후위기 충남행동(아래 충남행동)은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NG 터미널 사업이 도내에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은 (전기 생산) 발전원에서 LNG 비중을 축소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남행동은 "이미 보령 화력 바로 옆에는 민간 상업용 LNG 저장탱크 6기와 연간 600만 톤의

LNG를 직도입할 수 있는 하역부두 등을 갖추고 있다. 추가적으로 더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에서도 한국가스공사가 추진하는 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당진항 고대부두에도 LNG 터미널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에서 가스(LNG)로의 전환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일부 저감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발전부분의 탈탄소화를 지연시킨다. 충남은 LNG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부담을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NG 역시 화석연료일 뿐이라는 것이다.

황성열 기후위기 충남행동 대표는 (중략) "LNG 역시도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고 있다. 충남이 탄소중립 경제 도시라는 이름으로 탄소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던 시설처럼 지금은 LNG 시설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만큼 충남의 골칫덩어리가 될 가능성도 크다. 충남도는 LNG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써주세요!”

계성초 병설유치원 나눔장터 수입 환경운동연합에 기부



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이 나눔장터 수익금을 후원하고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계성초 병설유치원 어린이가 나눔장터에서 판매하는 모습



계성초 병설유치원 어린이가 나눔장터에서 판매하는 모습

유치원 어린이들이 나눔장터를 열고 수익금을 모아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써달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에 기부했다.

지난 6월 19일 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손창원 공동의장과 박은정 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에 당진환경

운동연합은 어린이들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계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들이 자원순환을 위해 나눔장터를 열어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30만8,200원을 당진환경운동연합에 기부금으로 전달하며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데 써달라는 뜻을 밝혔다.

[글: 사무국]

“바다에 왜 버려? 일본 땅에 보관하면 되잖아!”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행사에서 지구를 지키자는 의미로 함께 지구본을 굴리는 행위극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이 집회를 마치며 바다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아 지구공을 굴리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습도가 60%를 넘어가는 등 찜통 같은 날씨를 보인 22일 오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열린 3차 전국 행동의

날 행사에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고 오염수 육지 보관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로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참석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한 번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고 폐로할 때까지 최소 3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며 “일본은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대형 탱크를 통한 육상 장기 보관이나 시멘트를 넣고 고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일일브리핑이 아닌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는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

이라도 정부는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바다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아 지구공을 굴리는 행위극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공동행동은 다음 달 8일 4차 전국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출처:한겨레]

낙동강 하류 녹조 심각 "20분 조사하는데 악취가.."

창원 본포취수장-김해 생림면 쪽 상황... 낙동강네트워크 "보 수문 개방해야"



김해 생림면 부근 낙동강 녹조 상황

낙동강 하류 쪽에도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24일 경남 창원 본포취수장과 김해 생림면 마사리 쪽 낙동강은 온통 녹색이었다.

사람들이 녹조가 심한 강 바로 옆 둔치에 조성된 공원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강에서 레저를 즐기기도 했다. 본포취수장 쪽에서는 녹조저감시설인 폭기(살수) 장치가 가동되고 있었다.

이날 낙동강 모습을 사진 촬영한 정순화 환경활동가는 “본포취수장 건너편 학포공원 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학포공원 쪽 강은 녹조가 훨씬 심했다”고 전했다. (중략)

김해 생림면 마사리 쪽 낙동강을 살펴본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낙동강은 녹조가 심하게 발생해 있었다. 현장에서 20여 분 정도 조사를 했는데 악취가 심하고 목과 코에서 비염 증세를 보일 정도였다”고 전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칠서 지점에 대해

지난 8일 조류경계 ‘관심’에 이어 22일 ‘경계’ 단계로 상향 발표했고, 15일 물금·매리 지점에 대해 ‘관심’ 단계 발령했다.

칠서지점은 12일 3만 3499세포/mL, 19일 1만 5220세포/mL로 2회 연속 남조류 세포수가 1만 세포/mL 이상 나왔다. 단계별 조류경보 발령 기준을 보면,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기준을 넘으면 ‘관심’, ‘경계’, ‘대발생’으로 구분된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23일 낸 성명을 통해 “정부의 녹조 관리대책의 실패는 낙동강 유역 국민의 생명과 건강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가 없다”며 “현재 낙동강 본류 녹조 확산 상황을 볼 때 정부의 사후 녹조 관리대책이 성과를 보이기보다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출처:오마이뉴스 일부 발췌]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3년 6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33,844,664	인건비	급여	4,600,000
회 비	개인회비	5,270,000		퇴직적립금	415,280
	법인회비	120,000		사회보험료	513,050
	계	5,390,000		계	5,528,33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328,200	경상비	복리후생비	45,000
	법인후원	-		세금과공과금	84,380
	계	328,20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지급수수료	155,560
	계	-		기타운영비	28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	계	566,840	
	계	-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440,000
보조금	기타사업	-		생태보전사업	1,443,640
	계	-		생활환경사업	9,139,000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조직 회원사업	788,370
	계	-		모금사업	-
기타수입	기타수입	20,896		연대사업	462,103
	계	20,896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계	12,273,113	
	계	-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차입금	차입금			계	
	계	-	이월액	이월액	21,215,477
		계		21,215,477	
월수입 총계		5,739,096	월지출 총계		18,368,283
수입 합계		39,583,760	지출 합계		39,583,760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당진 캠페인

6월 6일 당진구터미널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6월 운영위원회 회의

6월 13일 에코생협 당진점에서 6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6월 15일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탐동초등학교 학부모 환경동아리 환경교육

6월 22일 탐동초등학교에서 학부모 환경동아리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6월 26일 서울 국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회 8차 공론장 워크숍

6월 28일~29일 1박2일 동안 보성, 나주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견학 및 워크숍에 다녀왔습니다.



01 일반사업

- ❖ 7/03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구터 로터리
- ❖ 7/04 7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충남캠페인 준비 점검회의 - 온라인
- ❖ 7/05 남부사회복지관 기후변화 동아리 활동 협약식 - 남부사회복지관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충남캠페인 세미나 - 온라인
- ❖ 7/06 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충남캠페인 - 보령화력, 보령시내
- ❖ 7/07 에코생협 생활재위원회 - 에코생협 당진점
충남 녹색일자리 포럼 - 충남도의회
- ❖ 7/10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구터 로터리
원당중학교 2~3학년 환경교육 - 원당중
- ❖ 7/12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수소세미나 - 서울역 회의실
- ❖ 7/13~7/14 환경운동연합 전국활동가대회 - 대구 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
- ❖ 7/14 전국지역리더대회 농촌에너지전환 토론 - 부여유스호스텔
- ❖ 7/17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구터 로터리
- ❖ 7/18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분과 작은워크숍 - 당진시청
- ❖ 7/20 환경운동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회 9차 공론장 - 온라인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상반기 신입회원 만남의 날 - 사무실
- ❖ 7/24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캠페인 - 구터 로터리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7/25(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하용봉(읍내동) 정병준(송악읍) 박희선(석문면) 이 월(원당동)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낙현 고락일 고재만 고중민 광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경완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오화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기동 김기재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길 김동진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민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예나 김용준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진 김정곤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현용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맹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연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찬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윤경 백종필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선 손창원
 손화용 송노섭 송병연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유경자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종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세봄 이석규 이순영 이승호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순 이상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철재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해슬 이해정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광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중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분환 정봉식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중환 정중섭 정치웅 정희구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기 최성욱 최세호 최오상 최원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봉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권섭 허인옥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두표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김현기) 글로벌천막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대성종합공구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 7월 5일까지 입금기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월요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도 매주 월요일 캠페인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 편하신 날짜에 시간이 되시면 함께 캠페인에 참여바랍니다.



날짜 7. 3.(월) 오후 5시 / 7. 10.(월) 오전 10시
7. 17.(월) 오후 5시 / 7. 24.(월) 오후 5시

장소 당진 구러미널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생명을 위한 초록변화를 만들어 갈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멈추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당진환경연합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지키는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 가입 방법

- 1 전화번호 041-355-7661로 문의바랍니다.
전화주시면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
- 2 홈페이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dj.ekfem.or.kr)
- 3 주변의 지인을 소개 해 주세요.
소개시켜 주신 회원님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